

경제

광주지역 기업 35%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불안”

경총, 143개사 대상 '2012년 전망' 조사

광주지역 기업 3분의 1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역 기업 143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35% (다소 불안 29%, 훨씬 더 불안 6%)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50%,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15%로 각각 나타났다.

노사관계의 불안 분야에 대한 질문에 34.9%가 '사내 하도급과 비정규직'을 꼽았고, 분야에 관계없이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26.8%에 달했다.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의 핵심 이슈

에 대해 임금 인상(40.9%), 복리후생 제도 확충(36.5%), 고용안정 및 정년 연장(16.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6.4%),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관련 요구(3.9%) 등의 순으로 답했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4%가 설립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28.1%는 2012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신규노조 설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노조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노동조합 최소 설립요건 도입(31.2%), 노동조합 부담노동행위 제도 신설(24.0%), 사업장 내 쉼터행위 금지(23.2%), 쉼터 대체근로 허용(10.4%),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8.8%) 등을 제시했다.

또 올해 선거경국이 노사관계에 미

칠 영향을 대해서는 인사·노무 담당자 3명 중 2명 이상(66.7%)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0.1%에 그쳤다. 선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선심성 복지정책 추진 등 사회적 비용의 기업 전가(27.7%),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연대 강화(21.5%), 정치권의 개별 기업 노사관계 개입(20.0%)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들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계를 이유로 사업장 점점(28.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비정규직 종합대책(22.5%), 대체휴일제 도입 등 공휴일 확대(17.1%),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안정 시도(9.9%) 등이 뒤를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식경제부 주최 '2012년 광주지역 경제활성화 정책토론회'가 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 무역 2조달러 목표 '5대 지원 방안' 나왔다

지경부, 시청서 토론회

지식경제부는 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12년 광주지역 경제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어 광주경제도약을 위한 5대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은 광주경제의 무역 2조달러 전략을 목표로 ▲광(光) 융·복합산업 허브 구축, ▲친환경자동차 부품 소재산업 거점 조성, ▲뿌리산업 기술혁신 및 고도화 지원,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 ▲세계적 수준의 기업투자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광·융·복합 허브 구축을 위해 2016년까지 300억원을 지원, 광주의 한국과학기술원을 허브로 대구의 IT·수송, 전북 농생명, 부산 해양, 경기 조맹 등 권역별 융합지원센터를 네트워크화해 융·복합산업의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 ① 광·융·복합산업 허브 구축
- ② 친환경자동차 부품 소재산업 거점 조성
- ③ 뿌리산업 기술혁신 및 고도화
- ④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
- ⑤ 세계적 수준 기업투자환경 조성 지원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300억원을, 산업용레이저 핵심부품·모듈 기술지원에 2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을 주축으로 체계적인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산업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반 구축에 1871억원을, 전자부품 상용화에 75억원을 지원한다.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 및 고도화 방안으로 올해 말 광주 광동산단에

하이테크형센터를 건립, 금융의 대형화·IT융합화에 대응한 중대형 금융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융합·접합 R&D지원시스템 실험동 건물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에 134억원을,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7억원을 지원하는 등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기반 확충 사업도 진행한다. 대구·구미와 연계한 3D융합산업 성장 토대 구축에도 지원한다.

이밖에 광주가 세계적 수준의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주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지역투자보조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회자들은 광주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한·중·일 FTA는 자칫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일본의 고도기술에 막혀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광주의 주력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며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중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사업으로 광산군의 제2야당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광산업육성 4단계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 1대1 상담 '맞춤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시책 설명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9일 무안군 삼향면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2012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본 행사장과 별도로 관련기관과 함께하는 1대1 상담장을 마련해 맞춤형 시책 설명에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청, 전남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식센터, 법무부 등

의 순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차관 등 위기관리 사전 준비,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 인기 확산, 공생발전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핵심과제를 안내했다.

1대1 상담장에는 14개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궁금증을 꼼꼼히 해결해 줬고, 중소기업 법률상담도 함께했다.

이날 1대1 상담에 참여한 기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전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무역보험회,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지식센터 등이었다.

양봉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이 연초에 시작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 때 안내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현장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찾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공사 수주액 4년만에 증가세

지난해 110조7천억 -7.2% ↓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011년 국내 건설수주동향을 조사한 결과 작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10조7000억원으

로 전년 103조2000억원보다 7.2%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전년대비 연간 국내 건설 수주액 증가율을 보면 2008년 -6.1%, 2009년 -1.1%, 2010년 -13.0% 등으로 3년째 감소했다가 4년만에 오름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작년 수주액은 최근 5년 동안의 실적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역수여서 아직 건설경기가 회복됐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주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전인 2007년(127조9000억원)은 물론 2008년(120조1000억원), 2009년(118조7000억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1년도 국내 수주는 공공부분이 부진한 반면 민간부분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지수	2014.62 (+10.89)
코스닥지수	524.27 (+3.32)
금리 (국고채 3년)	3.45% (+0.01)
원·달러 환율	1115.60원 (-2.2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스마트폰으로 국제청 홈택스 이용 가능

국제 법령정보 조회도

그동안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국제청 홈택스와 국제 법령정보 조회가 10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진다.

국제청이 제공한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는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제 환급금·세금포인트 조회 등이

다. 이중 민원증명 신청과 국제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가입해야 한다.

민원증명 신청의 경우 발급번호를 받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홈택스

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제법령정보에는 납세자 이용빈도가 높은 정보, 조세조약, 질의회신, 훈령·고시 등이 담겼다.

국제청은 또 국제 관련해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했다. 앱은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출발확정 3월28일** [준족금+1급호설] 로마지항 / 3대박물관 서유럽4국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태리) 9일 3,890,000원 + 유류할증료

**중국**

[봄의 도시] 곤명/석림/구향동굴 5일/6일

599,000원

**일본**

[NS홍소핑 HT] 후쿠오카 아마구치 특급로칸온천 4일

199,000원

**미주**

하와이 + 미서부 11일

1,890,000원

**유럽**

서유럽 6국 12일

3,090,000원

**호주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1,890,000원

**남미**

베트남/캄보디아 6일

1,299,000원

**동남아**

방콕/파타야 5일

399,000원

**한국**

서인/병마용/진시황릉/화청지 4/5 일

399,000원

**유럽**

서유럽 6국 12일

2,990,000원

**호주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1,990,000원

**남미**

베트남/캄보디아 6일

1,199,000원

**동남아**

방콕/파타야 5일

399,000원

**한국**

서인/병마용/진시황릉/화청지 4/5 일

449,000원

예/약/상/담	북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동구점 227-8255	남구점 382-5353	침단점 233-2627	충장점 222-9796	하남점 954-9700	광천점 350-6226
---------	--------------	--------------	--------------	--------------	--------------	--------------	--------------	--------------	--------------